

# 축사에 석탄재 불법 매립...침출수로 물고기 떼죽음

### 농경지 오염 등 피해 발생...고흥군, 경찰에 고발 지하수 사용 못 할까 걱정...농민들 대책 마련을

고흥의 한 축사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된 석탄재 등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근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경지가 오염돼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흥군은 석탄재의 불법 매립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도덕면의 한 축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 농경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한 주민은 "비만 오면 검은 침출수가 흘러나와 악취가 진동하고 인근 하천에서는 물고기 500여 마리가 죽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곳에서 논과 밭을 경작하는 대부분 농가는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축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마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있으면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비만 오면 악취를 내뿜는 침출수가 흘러들어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쓰고는 있지만, 침출수 때문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고흥군은 축사를 지으면서 환경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석탄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축사업자에게 이달 1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축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탄재는 납·비소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비가 오면 침출수로 주변의 토양과 하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침출수의 성분이 정확하지 않아 관계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농민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의 한 축사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된 석탄재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고흥김 600만달러어치 日 수출

청정 고흥김 600만달러어치가 일본으로 수출된다.

고흥군은 고흥군수협, 일본 킨바라노리텐 사와 지난 24일 군청에서 고흥 김 600만달러 일본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협약에 따라 고흥군과 수협, 킨바라노리텐 사는 3년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흥 김의 일본 수출 및 일본 내 유통 확대에 힘을 모은다.

일본은 연간 10억장의 김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과 함께 김 소비 대표 국가다.

도쿄에 있는 김 전문업체인 킨바라노리텐 사는 앞으로 고흥군에 지사를 설립해 김 가공·보관시설 등을 신축하고 일본 김 수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이후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 생산 어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시장 개척 및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보성군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가 코로나 위로 차원 노조 건의 수용

보성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방역, 지도·단속 등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로자의날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공무원노조의 건의를 김철우 군수가 받아들여면서 성사됐다.

보성군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과 징검다리 연휴인 4일에 절반씩 나눠 쉬도록 했다.

보성군 한 공무원은 "그동안 다량대축제·일림산 철축제 등 5월에 열리는 축제를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해왔다"며 "축제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날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을 위해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로 조금이나마 보상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구례에 유전자 변형없는 친환경 콩나물 생산공장 준공

### 30억 투입 '알콩달콩공방' 건립 70개 농가와 50ha 콩 계약재배

구례군은 친환경식품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유전자 변형 없는(Non-GMO) 친환경 콩나물 생산공장인 '알콩달콩공방'을 건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알콩달콩공방은 3000㎡ 대지에 30억원을 들여 친환경 콩나물·숙주나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1일 2.2t의 콩나물 등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난해 16농가와 10ha의 콩을 계약재배해 19t을 수매했다. 올해는 알콩달콩공방이 운영됨에 따라 70농가와 50ha를 계약재배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 ㈜알콩달콩 이강철 대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착한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알콩달콩공방에서 필요한



구례군이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유전자 변형 없는 친환경 콩나물 생산공장을 건립, 지난 24일 준공식을 했다. <구례군 제공>

연간 200t의 콩류를 지역에서 수급해 상생협력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 콩은 구례군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품목이라며 매년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알콩달콩공방이 지역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 관광객 300만명 시대...인구 507명 줄고 세대수 41가구 늘어

### 2018년 통계 연보

곡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한해 3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리는 5월에 곡성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018년 곡성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곡성군 인구는 2018년 말 주민등록기준 총 2만

9624명으로 전년 대비 500여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가구 수는 노인 1인가구 증가로 41가구가 늘어났다. 사업체 수는 총 2104개소로 전년 대비 66개소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351명 늘어난 1만 1294명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사업체가 492곳 늘어나 19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분류별로는 도소매업 530개소, 숙박 및 음식점업 436개소 순이었다.

2018년 곡성을 방문한 관광객은 300만6657명으로 조사됐다.

관광객의 수는 축제를 전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열린 5월에 관광객 수가 61만8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18회 곡성심정축제가 열린 10월 관광객 수는 27만1611명이었다. 반면 축제 기간 외에는 평균 20만명 정도가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5% 가량 감소한 534건이었다. 지능범죄와 특별법 범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17개 부문 225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통계연보는 군민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지역민을 비롯해 곡성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변화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